

■ 겨레의 창

## 통일이란 하(何)오

\_ 전영선 / 건국대 HK연구교수



이쯤처럼 통일을 설명하기 쉬운 때는 없다. 아니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다.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도, 이유도 한 마디로 결론난다. 말 그대로 '대박'이다. 구호는 간결하게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다. 그 힘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통일은'이라는 선창에 맞추어 '대박이다'로 건배도 몇 번 해 보았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는 데, 통일 대박론은 식어가던 통일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있다.

통일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 분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겨 놓은 마음의 장벽, 분단의 상처가 마로새겨 놓은 몸의 기억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 속에서 공통성을 찾아내고, 그 공통성으로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남북의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성숙이 필요하다.

대학원에서 수업할 때였다. 통일 관련 과제를 낸 적이 있었다. '통일이 되면 대박 날만한 직업은?', '북한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남한 영화 5편을 고른다면', '북한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북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은 곳 5군데와 그 이유' 등이었다.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있었고, 전업학생에서부터 종교인, 시민단체, 북한이탈주민,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각각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남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목표였다. 각자의 다른 생각을 읽고, 차이를 발견하고, 소통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남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래' 다섯 곡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았다. 간신히 제목만 기억하는 것도 박수를 받을 일이었다. 명색이 북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대학원이었지만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일반인과 크게 다른 수준이 아니었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열의만 가득했지, 통일에 대한 기초체력은 부족했다. 열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험난한 과정이 있다. 통일은 이 지난한 과정을 이겨낼 체력이 튼실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욕심만으로 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은 분단의 시간만큼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 문화적 공통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달라졌다. 소통 없이 지나온 분단의 시간이 낡은 결과이다. 남북문화의 이질화를 당연한 결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통일이 아니어도 문화적 혈맥을 찾아 이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기준이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 교류는 당장의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통일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이익을 통일한국으로 환원하는 과정이다.

통일은 오랫동안 분단되었던 남북의 삶이 하나가 되는 지난(至難)한 과정이다. 서로 다른 타자와 소통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분단의 기억, 남북 사이에 켜켜이 쌓인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수십 년을 불신의 관계로 이어왔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의 진정성보다는 말 뒤에 감추어진 의도를 먼저 경계한다. 불신의 아버투스가 우리 삶 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통일이 되면 현재 휴전선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답한다. '우리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통일이 되어도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유효하다면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문화적 차원에서 새로운 민족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민족개념의 방향은 한민족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혈연, 언어, 생활문화 등 표준화될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민족 구성원들이 각 지역에서 이룩한 차이와 문화변용을 바탕으로, 이 차이들이 상호 교감되고 소통되는 집단적 유대의 끈을 형성하는 데 있다. 단지 단순한 체제 대립만이 아니라 '마음의 장벽'을 남긴다는 점에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간의 소통과 상처의 치유, 그리고 평화공존의 방향성 속에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은 단순히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과정이 아니다. 통일생태계를 푸르게 가꾸고, 통일한국의 꽃을 피우는 과정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북방을 통해 대륙으로 향한 문명의 길을 열어 나가는 과정이다. 남으로 해양으로 진출하고, 북으로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길을 다시 찾아 한반도를 통해 대륙과 해양으로 이어졌던 문명이동의 꿈을 깨우는 과정이다.

막히면 뚫고 지나가는 욕심과 함께 걸리면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막힌다고 주저 않고, 걸린다고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산이 강을 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이 산을 넘지 못하는 것인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산처럼 굳건하게 버티는 힘과 막히면 돌아서 길을 찾는 강의 지혜를 모두 배워야 한다. 통일에 대한 준비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다. 통일에 대한 모처럼의 관심과 열기를 통일의 동력으로 확보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는데 돌려야 한다. 통일은 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하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다. 통일이 되었다고, 저절로 강대국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바랄 수는 없다.

옛날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농부에게는 농사짓기 싫어하는 자식들이 있었다. 자식들은 봄이 되어도 논밭을 돌보지 않아 잡초들이 무성하였다. 농부는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밭에 황금을 묻어 두었다는 유언을 남겼다. 평소 게으르고 농사짓기를 싫어하던 자식들이었지만 밭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열심히 밭을 갈아엎었다. 하지만 황금을 찾을 수 없었다. 황금을 찾지 못해 실망하던 자식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 갈아엎은 밭을 보고는 농사나 짓자고 하였다. 밭에 씨를 뿌리자 곡식들은 잘 자랐고, 큰 수확을 얻게 되었다. 비로소 자식들은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진정한 보물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겨레의 창 · 새로 찾은 겨레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남녘말 북녘말

## ■ 새로 찾은 겨레말

## 온천과 온정

\_ 김재용 /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자어는 중국의 한자를 한국과 일본이 받아들인 이후 각 나라에서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공통의 어휘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각 지역의 독특한 어휘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상이한 면모를 갖게 되었다.

아편 전쟁 이후 서양의 새로운 문물이 등장하면서 가장 앞서서 수용하였던 일본이 자기만의 독특한 한자어를 만들었고 이어서 중국과 한국이 이를 참고하면서 자기만의 한자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양이 발명한 train을 일본이 기차라는 새로운 한자어로 번역하여 만들어 낸 반면, 중국은 다른 한자어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한자어와 중국의 한자어 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한국에서는 일본이 번역하여 만든 한자어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현재 남북에서는 기차를 가장 널리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현재 중국에서는 기차를 train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car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자어는 현대 이후 한중일 모두에서 독특한 양상으로 정착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일본의 강점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진 한자어의 혼란상이다.

일본인들이 조선을 강점한 이후 일본인 관료들은 조선을 자신들의 취향대로 통치하기 위하여 열심히 조선어를 공부하였다. 조선어를 잘 하는 관료들에게 승진의 혜택을 줄 정도로 조선어 강습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들이 조선어를 공부하면서 당황했던 것 중의 하나는 같은 사물을 놓고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들은 '가족'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선인들은 '식구'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동일한 사물에 대해 상이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과 조선의 한자어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가족과 식구를 둘 다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가족이란 어휘를 더 자주 사용하는 현실을 보면 일제 강점 이후의 식민지적 현실이 한자어 어휘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이 너무 굳어져서 어휘를 연구하는 학자들마저도 알지 못할 정도이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는 어휘에 남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알아차릴 정도로 정착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채만식 '탁류'의 다음 장면이다.

차가 대전역에 당도하자 초봉이를 앞세우고 플랫폼으로 내려서던 제호는 명승고적을 안내하는 간판에서 유성온천이라는 제목이 선뜻 눈에 띄었다.

‘유성온천?...온천?’

제호는 내숭스럽게 싱긋 웃으면서, 간판을 보던 눈으로 초봉이의 뒷맵시를 훑는다. 비로소 그는 제 야심을 의식적으로 행동에 옮겨볼 생각이 나던 것이다. 오지 않으면 아무렇게라도 오래잡아 만들기라도 할 박제호지만 우연히 그에의 찬스는 빨리 왔고 겸하여 좋았을 따름이다.

“초봉이, 온정 더러 해봤나?”

쇠뿔은 단김에 뽑으라 했으니 인제는 시간 문제라 하겠지만 시방부터는 용게 남의 계집을 꺾는 수작이거나 생각하면 일찍이 여염집 계집한테는 못해 보던 짓이라 노상 뒤가 돌려다되지 않지도 않았다.

초봉이는 마침 가드 밑을 지나면서 전에 서울로 수학여행을 갈 제 이것을 보고 진기하게 여기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한눈을 파느라고 제호가 재우쳐 물을 때서야 겨우 알아들었다.

“온정미요? 온천?...”

초봉이는 되묻고서 고개를 가로 흔든다.

“...못 가봤어요.”



박제호가 초봉이를 꼬드겨 유성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수작을 하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것은 온정과 온천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유성온천이라고 적혀 있는 안내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총독부 관할하의 대부분의 행정적 방면에서는 일본식 한자어인 온천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박제호나 초봉이의 눈에 온천이라는 한자어는 여전히 매우 낯설다.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온정이라는 한자어이다. 온천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던 박제호가 이 안내판의 온천이란 어휘를 낯설게 여기면서 초봉이에게 온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초봉이 역시 온천보다는 온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작가 채만식은 이 대목에서 온천과 온정이란 말의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일본식 한자어와 한국어 한자어가 충돌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식민지의 현실을 무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인들이 식민지를 하면서 만든 일본식 한자어와 한국의 한자어의 대차대조표에도 온천과 온정이 대조되어 적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하다. 그런데 현재 남북에서는 온정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모두 온천으로 사용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하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온정리라는 마을 이름에서 겨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온천 대신에 온정이란 말을 지금 살려 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말의 어휘를 새롭게 찾고 발굴하고 있는 겨레말 사전에서는 이러한 어휘의 역사를 밝혀 놓으면 좋겠다.



## 강추위

— 주영훈 / 겨레말큰사전 연구원

“형 강소주가 정확히 무슨 뜻이지요?”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후배가 물었던 질문이다.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들이 하나둘 말을 거들었다.

“강으로 마시는 소주라는 말 아니야?”

“강소주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강한 소주라는 말이지.”

먼저 위 질문의 답을 말하자면 강소주는 강소주의 잘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강소주를 아래와 같이 풀이하고 있다.

**강소주** 「명사」 안주 없이 먹는 소주.

그렇다면 강한 소주라는 추측을 한 친구는 어떤 유추과정을 통해서 저런 답을 하게 된 것일까? 아무래도 강이라는 접사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접사 강<sup>20</sup>과 강<sup>21</sup>(強)의 뜻풀이이다.

**강-20** 「접사」

「1」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3」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역지스러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21** (強)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리니 입에서 입김이 나왔다. 이제 입춘도 지났으니 강추위도 주춤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강추위는 접사 강<sup>20</sup>과 강<sup>21</sup>(強)이 결합한 것으로 보고 동형어로 뜻풀이하고 있다.

**강-추위** 「명사」 눈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으면서 몹시 매운 추위.

**강-추위**2(強--) 「명사」 눈이 오고 매운바람이 부는 심한 추위.

위의 뜻풀이를 보며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추위1과 강추위2 모두 매운 추위, 심한 추위라고 뜻풀이 하고 있고 두 올림말의 차이는 눈과 바람의 유무이다. 만약 강추위<sup>1</sup>이 접사 강<sup>20</sup>의 뜻만 그대로 따른다면 ‘눈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 추위’ 정도의 뜻풀이가 적당할 것이다. 그리고 강추위2가 접사 강<sup>21</sup>의 뜻을 따른다면 ‘매우 심한 추위’ 정도의 뜻풀이가 옳을 것이다. 단순히 두 올림말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 강추위<sup>2</sup>에 눈과 바람이 부는 이라는 단서를 달은 것으로 보인다.

올겨울만 해도 ‘때 이른 한파’라든가 ‘27년 만의 {강추위}’ ‘예고 없이 떨어진 기온’ 등이 기상 뉴스에 등장하고 있지요. <중앙일보: 지구 뜨거워진다는데 강추위 왜 계속되나요, 2013.2.20>

새해 첫 주 내내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근처인 {강추위가} 이어지겠으며 1월 1일에는 일부 지방에 눈이 내리겠다. <경향신문: 올해 마지막 날, 내년 첫날 강추위와 눈, 2012.12.30>

위의 용례를 통하여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용례의 강추위는 강추위<sup>1</sup>인 것일까? 강추위<sup>2</sup>인 것일까? 두 번째 용례를 보면 강추위와 눈이 오는 것을 구별하여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눈이 오는 강추위를 말하는 것일까? 아래의 글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날은 눈이 내리는데도 몹시 추운 날이 있다. 이런 날의 추위를 강추위라고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물론 이런 추위도 강추위이다. 강추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간혹 눈보라가 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강추위가 잠깐 누그러진다면 강추위가 물러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강추위라고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강추위가 언제나 먼저 있고, 간혹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을 뿐, 눈이 내리면서 갑자기 이전보다 더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치는 경우는 없다.<sup>1)</sup>*

글쓴이의 견해도 위와 같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올림말 강더위를 보더라도 강추위<sup>2</sup>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강-더위** 「명사」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별만 내리쬐는 심한 더위.

따라서 강추위를 동형어로 보고 강추위<sup>1</sup>과 강추위<sup>2</sup>로 나누는 것은 위에서 말한 강소주를 강한 소주로 오해하는 것과 같은 실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추위<sup>1</sup>만 인정하고 그 뜻풀이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sup>2)</sup>

**강추위** [명] 눈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으면서 몹시 매운 추위.

날이 점점 더 포근해지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겨울의 강추위를 강소주로 달했던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봄기운이 어서 찾아오길 바란다.

1) <남영신, 「남영신의 한국어용법핸드북」, 모멘토, 2005, p19.

2) 이 글은 글쓴이의 견해일 뿐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 남녘말 북녘말

## 비준

\_ 김완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익숙한 말이다. 전에는 들어보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던 말들이 이제는 너무도 익숙하다. 한미 에프티에이로 인해 비준이라는 말을 매일 접했기 때문이다. 이때의 신문 기사를 보면 온통 비준이라는 말만 나온다.

네이버 검색란에 '한미 fta 비준'을 입력하면 아래의 기사들이 줄줄이 나온다.

[\(주최사: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 분류: 영상/사진, 체험/참여\)...](#) 2012.10.30

한미 FTA 지지와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UCC 공모 공모분류 : 영상/사진, 체험/참여, 주최사: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 접수기간 : 2007-04-10~2007-04-30, 진행상태 : 접수마감, 참가조건 : 제한없음...

출처 : 취업사이트 방문자수 ... 공모전 대외활동 정보 | 게시판 내 검색

[한미 FTA비준 속도 불나...미 USTR부대표 "한미 FTA 통과시킬 시기"](#) 2011.04.08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일 오후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한미 대표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아시아투데이=추정남 기자] 한미 FTA비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북미 | 게시판 내 검색 | 저장된 페이지

["한미FTA 비준 강행 중단하라"](#) 2011.10.10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비준 약속이 아니라 동두천과 마포에서 발생한 미군 성폭행 범죄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SOFA 개정을 통해 미군 범죄의 재발을 막아내자..."

출처 : 민중의소리 뉴스 리스트 전체 | 게시판 내 검색 | 저장된 페이지

[수능시험전에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못하면 예비대학생들 한미FTA...](#) 2011.11.05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가 이루어지면 의 료비가 폭등해서 어려운 서민들은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우리 반 아이들이 야단법석을 치면서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 불만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프런티어타임스 자유토론평 | 게시판 내 검색 | 저장된 페이지

[한미FTA 국회비준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2011.10.24

한나라당은 하루 전인 1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당위원장은...

출처 : 민주노동 울산지역본부 노동소식 > 주요소... | 게시판 내 검색 | 저장된 페이지

'비준'과 같이 따라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면 '의회, 국회, 의원, ○○○당' 등이다. 모두 국회와 관련이 있는 말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남쪽에서 '비준'은 실생활에서는 쓰이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협정이나 조약 등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비준'은 정부나 국회에서만 사용하는, 그 사용역이 매우 제한적인 말인 것이다. 그런 말이 한미 에프티에이로 인해 신문과 지상파 티브이에서 매일 언급하다보니 결국에는 국민들의 귀에 익은 말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남쪽 사전에서는 '비준'을 이렇게 풀이했다.

《표준국어대사전》

**비준** (批准) [법률]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 국회 **비준/비준**을 거부하다/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이번 조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남쪽 사전은 '법률' 전문어로 설정하고 풀이와 예문에서도 기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국회'를 쓰고 있다.

그럼 북쪽은 어떨까?

《조선말대사전》

**비준** (批准)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단위 책임자나 일정한 기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확인하는 것.

북쪽의 사전에는 전문영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어로 처리하고 있다. 풀이에서도 정부의 공식적인 기구의 명칭이나 직함이 들어 있지 않다. '단위 책임자, 일정한 기관'이라 하여 '비준'의 사용역을 남쪽에 비해 넓게 두고 있다. 북쪽의 용례를 살펴보면 남과 북의 차이를 더 잘 알 수 있다.

- 공장 운동장에서는 초급 직맹 위원장의 {“비준”까지} 받은 대전표를 놓고 직장별로 대항하는 축구경기가 백열전을 이루었고 남자합숙마당은 물론 야간정양소에서 마저 탁구, 장기 등등의 경기가 승부를 다투는가 하면 공장진료소 결에서는 여성들의 널뛰기가 이채를 끌어 이날을 더 즐겁게 장식했다. 《황용국: 이 땅을 사랑하라》
- 자재와 품도 얼마 들이지 않아도 될 창안이며서 그는 자재 청구서를 작성하고 {비준을} 받고 하는 구차스러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었다. 《최종현: 쇠물을 끊이는 사람들》
- 마동호는 오늘 유격대입대가 {비준되여} 가슴에 기쁨과 자랑이 차고 넘치었으나 창억이때문에 시원한 웃음 한마디 웃어보지 못하고 저도 속이 괴로운듯 이따금 한숨만 후- 후- 내쉬었다. 《415문학창작단: 근거지의 봄》
- 그는 자기의 청원을 상부에서 {비준했다는} 희소식에 접하자 그만 환성을 올렸다. 《림재성: 입당 청원자》

남에서는 '비준'이 법률 용어로 정부 문서나 기사문에서만 사용되는데 반해 북에서는 '비준'이 두루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에서는 '비준'의 주체가 대통령인 반면 북에서는 '비준'의 주체가 훨씬 다양하다. 남에서 '승인'이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 북에서는 '비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